

##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이 동 훈      신 지 영\*      조 은 정      김 진 주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가 경험하는 삶과 가족관계 경험에 대한 현상을 탐색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소 후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Colaizzi의 질적분석 절차에 따라 의미있는 진술을 파악하여 주제, 주제묶음, 범주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총 22개의 주제, 6개의 주제묶음,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 '수감 중 생활: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에서의 주제묶음은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낮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창살 밖 자녀', '남의 편일수도 내편일수도 있는 남편'으로 추출되었으며, 두 번째 범주 '출소 후 가족 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사의 노력'의 주제묶음은 '돌아온 나와 함께하는 가족: 혼자가 아니라서 살만한 거친 세상', '출소사이기에 더 무거운 엄마의 명예', '좋은 싫든 내 남편'으로 정리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결과의 함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여성출소자, 수감, 출소, 가족관계, colaizzi, 질적 분석

\* 본 논문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의 <2015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연구> 보고서의 심층면접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연구임.

† 교신저자 : 신지영,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204호

E-mail : sjy337@naver.com

범죄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형자의 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7,924명이다. 이 중 여성수형자의 비율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4b). 범죄통계에서 여성수감자가 차지하는 수치를 고려하면, 남성에 비해 미미한 수치이지만, 범법 행위를 한 여성들은 남성범죄자보다 더욱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되어, 여성범죄는 더욱 은폐성을 가지며 표면적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박영숙, 2007).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범죄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대체로 배제되어왔다. 범죄원인론은 주로 남성범죄자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정책적 의사결정이 고안되었다(이수정, 양원석, 2011). 따라서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여성범죄자에게 일반화하여 교정행정 및 교정복지 정책 등에 적용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범죄에 대해 여성이 지닌 개인적 요소 및 사회환경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Bloom, Owen, & Covington, 2004; Chesney-Lind & Pasko, 2003).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Javdani, Sadeh, & Verona, 2011; Moffitt, Caspi, Rutter, & Silva, 2001)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계층으로서 힘과 기회가 박탈당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여성들이 범죄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이다(Messerschmidt, 1986). 실제로, 2013년 한 해에 전체 범죄자 수 214만 7,250명 중 여성범죄자는 약 35만 명으로 확인되었는데(범죄백서, 2014).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하위 집단이 38.0%, 중간 집단이 22.3%, 상위 집단이 0.6% (미상이 39.1%)로 수감 전 넉넉지 못한 생활

을 하는 이들이 과반수 이상이였다. 여성범죄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여성수감자의 범죄유형 중 사기가 49.1%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그 맥을 같이한다(법무연수원, 2014a).

수감 이후 여성수감자가 겪는 어려움 중 2/3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다(Arditti & Few, 2006). 특히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감되는 경우 이혼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여성수감자의 경우 수감될 당시 83%가 기혼여성이지만 이들 중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41.6%, 수감된 이후 이혼한 비율은 32.8%로 1/3 이상의 여성이 수감 이후 이혼을 경험한다(전영실, 2007).

또한, 남성수감자의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수감자는 30%가량이 40대로 이들 중 대부분이 자녀를 두고 있다(법무연수원, 2014a).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수감으로 인한 자녀와의 분리이다(Halperin & Harris, 2004). 여성수감자에게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는데, 수감 중이나 출소 후에도 자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유대관계가 튼튼한 여성수감자는 스트레스, 불안, 부적 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ustin & Irwin, 2001). 여성수감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러한 유대감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2,000명의 캐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감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위험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Kierkus & Baer,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도리어 어머니와의 접견을 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학교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더욱

경험하며, 부모에게 서신을 자주 받은 재소자 자녀가 부적응적 학교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연희, 2002).

자녀를 둔 여성이 수감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문제이다. 수감 전 자녀양육은 대부분 엄마인 여성수감자가 담당하는데, 수감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양육을 배우자나 다른 친척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여성수감자들은 자녀에 대한 더욱 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Enroos, 2011; Foster, 2012). 해외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수감되었을 때 약 1/3 가량만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대부분의 자녀는 다른 친척이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Glaze & Maruschak, 2008; Turanovic, Rodriguez, & Pratt, 201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이 수감되었을 때 남성이 자녀를 양육하며 여성의 출소를 기다리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주로 여성의 수감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신연희, 2002).

한편, 어머니의 수감은 자녀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조병준, 이희정, 2009; Hairston, 2003; Murray, Farrington, & Sekol, 2012; Phillips, Burns, Wagner, Kramer, & Robbins, 2002; Poehlmann, 2005; Simmons, 2000). 수감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재로 자녀가 받는 상실감은 자녀가 부모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와 맞먹을 정도이다(Temin, 2001). 여성수감자들의 자녀가 갖는 어려움은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부재로 인한 혼란, 아버지의 흔들림으로 인한 양육의 질 저하, 가족해체 시 겪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 여성수감자의 자녀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배척당함으로써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한다(Murray et al., 2012). 이러한 어려움은 수감자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찰과 법 체제에 대한 불신감, 학대와 방치, 학교성적 하락, 대인기피증, 비행 연루 등의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Dallaire, Zeman, & Thrash, 2015; Nesmith & Ruhland, 2008; Wildeman & Turney, 2014). 이런 문제로, 수감자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immons, 2000).

이처럼 여성수감자들은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수감생활 중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출소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여성출소자들은 안정된 주거공간 미확보, 취업,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남성출소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최영신, 황정임, 2006). 또한 수감과 더불어 이혼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나 고민에 대하여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언자의 필요, 자녀양육 지원, 법률 상담, 의료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요구가 남성수감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영신 등(2006)은 여성출소자는 출소 후 자녀와의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법률 등 남성에 비해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더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국내연구에 비해 해외에서는 여성출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수감 후의 사회 적응(Berman, 2005; Leverentz, 2010; O'Brien, 2001, 2007; Opsal, 2015; Taylor, 1996), 여성출소자의 출소 후 변화(Bui & Morash 2010; Cobbina, 2010), 여성출소자 사회복지지원 요구사항(Bergseth, Jens, Bergeron-Vigesaa, & McDonald, 2011; Prendergast, Wellisch, &

Wong, 1996), 여성출소자 가정복원(Arditti & Few, 2006; Leverentz, 2011; Menting, Castro, Wijngaards-de Meij, & Matthys, 2014) 등이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출소자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고, 이마저도 대부분 남성출소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여성출소자에 대한 연구는 10년이 지난 연구들이 다(최영신, 황정임, 2006; 김인숙, 1992).

또한 여성출소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의 여성출소자들이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여성출소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정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는 가정사에 대해서는 가정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여성출소자와 그의 가족이 갖는 수치심과 은폐성이 여성출소자와 관련된 주제를 사회적으로 다루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수감, 특히 어머니의 수감은 본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출소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은 이들의 재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Petersilia, 2003), 여성출소자의 출소 전과 후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의 지지 요인이 되는 자녀 및 배우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과정에서의 가족관계 경험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여성출소자의 가족관계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진한 현 시점에서는 여성출소자가 경험한 세계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를 대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질적분석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여성출소자의 출소 전과 출소 후 가족관계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sup>1)</sup> 또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8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의 연령은 31세 이상 54세 사이이며, 기혼 7명, 이혼 3명이였다. 기혼 여성출소자의 경우 배우자들의 연령은 31세 이상 60세 사이이고, 이들은 모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교부터 30대 성인까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의 수감이유는 사기(6명), 폭행(1명), 업무상배임(1명), 살인미수(1명), 존속 살인(1명)이었으며, 수감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5년이다. 9명이 초범이며, 재범이 1명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이며,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는 2명, 직접 사업을 하는 참여자가 2명, 주부 2명, 현재 직장을 다니는 참여자는 2명, 취업준비 상태에 있는 참여

1) 주거지원 서비스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계하여 출소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소자들 중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보호대상자들에게 최대 10년간 거주 공간을 지원하여 출소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지역	연령	수감 이유	수감 기간	출소후	범죄 횟수	현재 직업	가족관계	결혼 여부
1	경기	31	폭행	5개월	1년	초범	주부	배우자(31), 아들(9), 아들(8)	결혼 유지
2	경기	49	사기	8개월	5년	재범	고객센터 상담사	딸(19), 아들(10)	이혼
3	인천	43	사기	8개월	5년	초범	주부	배우자(46), 딸(17), 딸(14)	결혼 유지
4	서울	51	사기	10개월	3년	초범	의류업	배우자(50), 딸(25), 아들(18)	결혼 유지
5	서울	54	업무상 배임	21개월	5년	초범	학원 운영	배우자(60), 딸(31), 딸(29), 아들(18)	결혼 유지
6	경기	44	사기	3년	4개월	초범	여성지원센터 취업교육 및 자격증 준비	딸(15), 딸(13), 아들(11)	수감 중 이혼
7	서울	38	사기	8개월	4개월	초범	여성지원센터 취업교육 및 자격증 준비	아들(13), 아들(11)	이혼
8	경기	40	살인 미수	4개월	5년	초범	취업 준비	배우자(36), 딸(11), 딸(10)	결혼 유지
9	경기	47	존속 살인	5년	5년	초범	요양보호사	배우자(57), 딸(22)	재혼
10	인천	48	사기	6개월	8개월	초범	취업 준비	배우자(56), 딸(23), 아들(22)	결혼 유지

자가 2명이었다. 공단의 추천을 받은 여성출소자 22명에게 연구진이 먼저 전화로 인터뷰 목적과 내용을 안내한 후 참여의사를 물었다. 그 중 수감과 관계가 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한 12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이 연구참여자로 선정이 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면접 참여에 대한 소정의 비용이 지급되었다.

####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반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는 면접 시 유도심문, 심층적 질문, 어투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상담자의 진행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접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김영천, 2006). 면접은 여성출소

자에게 “수감생활 및 출소 후 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후속질문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비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후속질문은 결혼기간, 수감횟수, 수감이유, 배우자, 자녀,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으며 수감기간 동안의 가정생활, 수감 전/후 부부간의 변화, 자녀관계 및 자녀에게 수감 공개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면접 중 중요내용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접 분위기, 면접 전·후 등에서 나타나는 특기할만한 사항은 기록하였다. 면접은 상담심리전공 교수가 주 질문자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과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수감 및 출소과정에서의 가족관계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출소자들을 면접하고, 면접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Colaizzi(1978)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olaizzi(1978)의 방법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이다(엄태완, 2009).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어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Colaizzi는 자료수집 방법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특히 자료의 출처를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과 일치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공통속성을 반영하면서도 구성된 의미진술을 통해 주제묶음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보는 것도 가능하다(김분한 외, 1999). 따라서 이 방법은 여성출소자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관계에 기반한 넓은 범위에서 분석함으로써, 여성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이론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선, 연구자들은 면접 내용을 녹음하여 필사본을 만들었고, 녹취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면접 시 느낀 점을 적은 메모를 참조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시간 순으로 재정리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고 파악하였다. 반복된 청취와 필사본의 정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의미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진술들을 파악하였는데, 문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번 필사를 읽었으며 서술과 표현의 정교함이 사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로, 연구참여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원자료와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언어 표현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공통적인 진술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형태로 서술하여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다. 셋째로, 연구자들은 함께 모여 전사내용과 도출해낸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의 의미가 같은지 의견을 나누었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성적 고찰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몇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도출된 자료들을 수감생활과 출소 후에 대한 주제묶음으로 묶어 범주화하였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링컨과 구바(Lincoln & Guba, 1985)가

제안한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의 여성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결과에 대한 사실적 경험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추가 면접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출소자 본인에게 진술된 경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되었으나, 질적연구 전문가 1인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립성 유지를 위해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여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자료의 활용과 범위, 녹음, 비밀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참여 및 면접 녹음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분석과정 중 부정확한 정보가 있거나 보충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면접의 가능성에 대해 공지하였고 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 2014-10-001-004).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숙소 혹은 숙소 근처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개인별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100분에서 최대 18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였다. 면담 녹음내용은 인터뷰를 마치고 3일 이내로 석사과정생 2명이 1차 전사한 후, 연구자들이 다시 녹음내용을 들으면서 전사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녹음내용은 빠짐없이 기록되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번호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분

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들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 가족복귀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성출소자 10명의 면담자료에서 나타난 의미진술은 146개였으며,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의미진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22개의 주제, 6개의 주제 묶음,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 2로 나타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의미있는 문장을 근거로 하여 각 범주와 주제 묶음에 대해 기술하였다.

수감 중 생활: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

###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낮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에 대해 낮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 하였다. 처음 이들은 갑작스레 맞닥뜨린 수감생활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동료들로부터 이질감을 느꼈다. '너무 무서워서 들어와서 내내 울기만 했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강력범죄자들은 강력범죄인 사람들이랑 해놓고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사기인 사람들이랑 해놓더라고요. 또 마약범죄는 마약범들끼리 해놓고. 강력범들이랑 있으니까 처음에 적응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거기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술집 마담도 있었고. 술집 마담인데 손님 때렸는데, 폭행해

표 2. 여성출소자의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의 경험

수감 중 생활: 간헐 틈 안에서의 몸부림		출소 후 가족 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사의 노력	
주제 묶음	주제	주제 묶음	주제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낮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	갑자기 맞닥뜨린 두렵고 낮은 수감생활	돌아온 나와 함께 하는 가족: 혼자가 아니라서 살만한 거친 세상	나와 가족에게 찍힌 출소자라는 낙인
	같은 여자로서 이해되고 안쓰러운 동료 수감자들		여자이면서 출소자이기에 겪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여짐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사회적 지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은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교훈		그래도 가족이 있기에 희망찬 미래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창살 밖 자녀	그리운 자녀이지만 수감 복 입은 모습은 보여주기 싫음	출소자이기에 더 무거운 엄마의 명에	엄마로서 자녀 곁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나 아닌 다른 사람 손에 크는 자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반항하는 자녀
	자녀에게는 감추고 싶은 수감사실		돌아와 보니 엉망이 된 자녀의 공부와 학교생활
	수감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자녀의 존재		어려움을 통한 성장한 자녀에 대한 고마움
남의 편일수도 내편일수도 있는 남편	이혼 서류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운 남편	남편과의 관계	큰일 겪어보니 의지할 곳은 남편뿐
	수감 전부터 남보다 못했던 남편		남편을 감내하고 용서하려 노력함
	삶의 의욕을 잃고 같이 무너진 남편		나로 인해 무너진 남편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돈을 안줘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오십이 넘었는데 삼십대 남자랑 불륜관계를 하다가 그 남자가 다른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니까

죽여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그러니까 서로 이질감을 느낀 거죠. (연구참여자 8)

그러나 곧 동료 수감자들도 자신처럼 범죄인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빗을 지고 부도가 나는 등 생계를 위해 애를 쓰다가 수감된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자의 사연들을 알자 같은 여자로서 동료 수감자들이 이해되고 안쓰럽게 느껴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수감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개념이 바뀌었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감옥 내에서 반장을 하면서 동료들을 실질적으로 돕기도 했고,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영치금으로 생필품을 사다 주고 출소 후에도 동료 수감자의 구명을 위해 나서는 등 동료 수감자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의 불편함과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도움을 주면 고마움을 느끼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 동료 수감자들에게서 오히려 배우고 자기를 바로잡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정말 여자들.. 남자들하고는 정말 틀려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쁜 길로 접어든 사람도 있고. 뭐, 정말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사람들 서류도 제가 다 써줬어요. 거기 진짜 바닥이 싫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정말 몸을 파는 여자건 마약을 하는 여자건 살인을 한 여자건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서는 최선을 다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걸 많이 배웠고요. (연구참여자 2)

전혀 다른 세상이고, 좀 여기는 무조건

나쁜 짓하고 질 나쁘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개념이 바뀌었죠. '여기는 억울한 사람도 들어오고 그런 사람 좋은 사람들도 많다. 그럴 수도 있다?' 예전엔 용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되게 억울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기가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살인해서 온 사람도 있고. 우발적으로. (연구참여자 7)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교도소에서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다고 진술했다. 교도소 내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죄인이 아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존중하였다. 교도관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연구참여자들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항소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자신들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면 다 안 좋게 봤어요. 전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갔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잘 모르는, 몰라서 이게 제가 될 거라고 몰라서 저러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람처럼 봐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분들에게 감사하죠. (연구참여자 2)

교도관님이 계장님이 항소를 하라고. 항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물론 저희가 죄인이지만 거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저희 편에 서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지 말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족들한테 요청해서 하라고. 국선변호사가 ‘이 분이 괜찮은데 서류가 준비되면 국선 변호를 누구를 신청할 것인가.’ 하고 명단을 줘요. 근데 ‘이 분이 잘하니까 이분한테 하라.’고 정보를 줘요. (연구참여자 5)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을 통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교훈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희생했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은 가족에게 피해를 쳤고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헛되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이가 38이 됐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7)

‘아, 그래. 그럼 내가 쉬자.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살아서 좀 쉬라고 주셨나보다. 시간을……’ 그래서 그 안에서 책을 엄청 100권 읽었을 거예요. (중략) 책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무슨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저도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계속… 명목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고, 뭐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는 가족한테 피해를 쳤잖아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죠. 욕심이었죠. (연구참여자 2)

###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창살 밖 자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녀가 있는 어머니였다. 그들에게 창살 밖 자녀는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소중한 존재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리운 자녀이지만 수감사실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영향을 받을까봐 우려했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아예 자녀와의 접견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봐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알게 되면 그냥 와서 못 보고 지내는 것보다 보고 지내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옷 입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5)

수감됐을 때도 아이들한테 말 안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상처 줄까 봐. 아이들은 한참 자라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처주기 싫었어요. 엄마가… 결국엔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나쁜 일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었던. (연구참여자 7)

수감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자녀양육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주 양육자가 되었다. 이혼가정에서는 친정어머니, 친정언니 등 원가족의 도움이 있었고, 이혼한 전남편의 시어머니가 대체 양육자가 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엄마가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친척 집에 신세를 지고 눈치를 보는 등 고생한 것에 마음아파하였다.

아이가 이모 집에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할머니 계셨고 이모부 계셨고 또 언니 있고 언니 딸내미가 있었고……. 네 식구가 사는데 딸까지 다섯 명이죠. 근데 방 두 칸에서……. 나와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힘들게. 그니까 지도 같듯이 많았나 봐요. 그 상황에서……. (중략) 처음엔 시택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애를 보냈는데, 시택에서 그 때 사건 재판받고 있는데 시동생이 왔더라고 면회를. 애 안 데리고 가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언니가 또 언니도 마음이 여러가지고 제가 나올 때까지 데리고 있자 해서 언니 집에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큰 애는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너희 엄마가 없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수감 사실을 감추고 싶어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렴풋이 아이들이 눈치 채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부

채를 해외 출장, 장기 병원입원 등으로 자녀에게 둘러댔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가 묻지 않는다면 굳이 수감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지금도 그냥 어렴풋이 엄마 재판받으러 잠깐 들어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고민을 해요. 저희 딸도 아직 몰라요. 당연히 고민을 하지요. 여러 각도로. 저는 안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구참여자 2)

그 때는 몰랐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알고…… 큰 애는 반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우리 아이들은 집안이 연결된 일이라서 아예 모를 수도 없었던 거고 알게 됐었고…… 셋 다 알게 됐었고. 다 어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 1~2학년 그 정도. 정말 제가 몹쓸 짓했죠. (연구참여자 6)

수감생활을 버티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는데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존재, 가족의 존재였다고 진술하였다. 모진 어려움을 겪은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아이들이 클 때까지 자신이 강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아이들이예요 저는. 저는 생각한 게 아이들 때문에 살았지, 아니었으면 저는 자살했을 것 같고. 아이들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거고. 왜냐면 제가 40인데도 이렇게 문제 일으켜서 (우리) 엄마 도움을 받는데, 우리 아이도 40~50 돼도 제가 건강하게 있어야지 든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예요. (연구참여자 6)

만약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자살 생각을 했다하면 저희 부모님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그나마 아이들이 저를 믿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에는 다 놓고 싶은데 그나마 사랑의 힘이고, 대단한 거 같긴 해요. (연구참여자 7)

음, 거기서 느꼈던 거는 내가 가족이 있다는 거.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니까 나가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전 행복한 거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애는 자기가 나가도 가족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연구참여자 2)

#### 남의 편일수도 내 편일수도 있는 남편

연구참여자들과 남편과의 관계는 수감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수감 중에도 그에 따라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비교적 남편과 사이가 좋았으며, 자신을 기다려준 남편에 대

해 고마워했다. 여성수감자의 경우 남성 수감자들보다 수감 중에 배우자가 이혼 서류를 교도소로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수감 중일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수감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거기 있어 보니까 거기 한 언니가 남자랑 바람을 폈다가 남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못 받은 거 때문에 하여튼 그 언니도 사기 비슷하게 왔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남자 쪽에서 이혼 서류를 들여보냈어요. 거기서 이혼서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거래요. 거기 안에 있으면.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혼되는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나이가 적건 많건간에 일단은 남자 쪽에서 이혼서류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게 안 보내는 것도 참 고맙죠. (연구참여자 3)

한편,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무능력, 외도,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으로 수감 전부터 갈등을 겪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남편 때문에 자신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등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고 존속살인으로 수감되었던 연구참여자 9의 경우, ‘죽고 싶었다.’고 그 괴로움을 진술하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세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카드빚을 지게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가 그러고 나서 그 사건 터지고 나와서 내가 다 갚은 거예요. (중략)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다고 남편이 미워서 딱 그런 것도 아니고. 애가 있으니까 애 아빠잖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연구참여자 9)

뭐 술 먹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 으로 때렸는데 나중에는 칼까지 들이대고 애들 앞에서 때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또 문제고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려고 하니까.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이러면 그제서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생활하고 하니까 부모님,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도 (가슴에) 못이 박혔죠. 엄마 아버지도 봤어요. 그거를. (연구참여자 7)

내가 조금을 돈을 만지니까 엄마도 도와주고 오빠도 도와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남편은 모르게 한다고 해도 남편은 그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불로 덮어놓고 때리고, 욕하고. (연구참여자 10).

아내가 수감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남편에게도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수감 시 남편과 이혼한 연구참여자 6의 경우, 자신의 수감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남편이 삶의 의욕을 잃고 망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남편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망가지니까 자기관리도

안 되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하여튼 위모도 거의 한 20년은 늙어 보이고 그런 거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고립돼 있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 그 다음에 내 원망하는 거, 그런 거. (연구참여자 6)

출소 후 가족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사의 노력

### 돌아온 나와 함께하는 가족: 혼자가 아니라서 살만한 거친 세상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한 연구참여자들은 살아갈 길이 거칠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기에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소 후, 연구참여자들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조차 출소자라는 낙인이 찍혔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피하고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소자이면서 나이가 많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의 취업은 어려웠고, 이들은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제가 인상 좋고 이랬는데 아무리 성격 좋다고 해도 사람을 알기까지는 힘든 거죠. 편견? 편견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지만 결국에는 저한테는 찍힌 거잖아요. 빨간 글씨가 있는 거잖아요.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축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7)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하고 직장을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직장을 서류를 내도 저는 서류를 두 번을

내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니까 안 뽑아요. (연구참여자 2)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취업을 위한 교육, 주거지원 등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여성지원센터로부터의 여러 사회적 지원, 그리고 천주교 단체의 자금 지원 등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에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같은 사회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이후에도 베푸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집 혜택 보고 천주교에서 창업 자금 혜택 보고 저는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중략) 사실 '내가 힘들었다, 근데 이런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사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정보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 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거기서 시켜주는 교육은 다 좋아요. (연구참여자 5)

그 전에 차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중략) 그러니까 좋게 봐주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거죠. 저흰 (위낙) 없이 사니까 '집도 이런 것도 있다. 해봐라. 서류 같은 거 넣어봐라.' 하셔서 서류를 넣어봤더니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받게) 된 거죠. (중략)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정말 열심히 살다보면 또 잘 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우리도 (도움 받았

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연구참여자 8)

또한 이들은 가족과 있기에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고 보고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저는 애기 아빠한테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50 인데 앞으로 10년 열심히 벌면 우리 OO이 조금씩 벌어서 시집 보낼 수 있고 지가 네일아트라도 한다니까 전문대라도 가서 시집가면 남편한테 기 안 죽고 살 수 있고, OO이 학교 보내서 경찰이 되든 군인이 되서 안정되게 살 수 있고 항상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아 그래 10년 뒤에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4)

낙이나 즐거움은……. 그냥 남편한테 전화하면 택택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주택 이사 같 희망 그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지금 그냥 어쩔 때는 되는 대로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다 때려치고 살고 싶은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 위해서 뭔가 희망이.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서 달려 가면은 목표까지는 못 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7)

**출소자이기에 더 무거운 엄마의 멍에**

출소 후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이기에 더 무겁게 엄마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엄마로서 자녀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고, 죄를 지어 감옥에 다녀온 죄인이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들은 엄마로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의 곁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깊은 죄책감을 보이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자녀가 겪지 않아도 될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한 자녀를 보며 가슴 아파 하였다. 또한 자신의 죄로 아이들이 낙인찍히거나 범죄가 대물림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그 때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내가 키웠지만. 초중 때가 그 때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일단은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 했다는 거죠. 부모로서…… 일단은 빨래고 먹을 거고 간에. 일단은 지가 어렵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런 것도 혼자서 견뎌내야 했고…… (중략) 일단은 엄마로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자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로 인하여 재가 고통 받는 데. 항상 말문이 막힌다는 거겠죠. (연구참여자 9)

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그런데 갔다 왔다는 게 잠재적으로 자

기는 안 좋겠죠. (중략) 제일 마음 아픈 건 저희 딸이 대학을 못 갔다는 거. 학교에서는 저희 딸이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운영위원회 그런 거 하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회의하고 그랬었는데 애가 왜 대학을 왜 안 보내는지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질 찾았대요. 우리 딸이 엄마 외국 갔다고 했대요. (중략) 아빠가 (사업 부도로 빚을 크게 진) 그때여서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웠지, 엄마가 그렇지, 여유롭게 크다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취직을 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4)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러면 애들이 혹시라도 뼈뺏하게 나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죠, 항상. (연구참여자 8)

이들은 자신의 공백이 자녀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녀는 정서적인 불안으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떨어져 있던 엄마에 대해 반항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학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보였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거부를 하는 자녀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부정적인 모습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였다.

아들이 그 일 이후로……. 제가 (출소 후) 집에 (돌아온 뒤로) 와서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자기 의견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요. (중략) 말을 해야 하는데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뒤에 해야 할 말을 앞에

한다거나 결론만 딱 얘기를 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뭔가에 자기 마음을 닫고 있대요. 지금도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일하다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엄마 어디야?’ 그러면 ‘엄마 뭐하는데?’ (연구참여자 5)

성적이 그렇게 못하던 애가 아니었는데 와보니깐 세상에 살이 한 10kg가 썩었고, 끝에서 4등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만큼 이게 무섭구나. 내가 없는 그 사이에 반에서 밑에서 4등.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4등이래요. 예?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밑에서 4등이에요. (연구참여자 2)

한편으로는 엄마의 수감기간을 잘 견뎌내고, 어려움을 통해 성장한 자녀도 있었다.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동생을 자발적으로 돌보거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등 자립심이 길러졌다. 또한 성인 자녀의 경우,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수감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가정이 지탱되도록 기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성장을 대견해했고,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뼈뺏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준 자녀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자립심. 자기가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 밑에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애가 인

식을 했죠, 옛날에는 동생이나 이런 거는 엄마가 알아서 다했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동생이 내가 필요하구나. 제가 없었던 그 빈자리에 애가 자기 자리를 채웠죠. (연구참여자 2)

애들이. 한 번도 비뚤어 나가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성실하고 다른 애들보다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게 제일 고맙죠. 그 때 한창 사춘기 때 막말로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게 대견하죠. (연구참여자 3)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용돈 벌고. 아빠도 벌지만 아빠는 일정한 월급이 없으니까 자기가 월급 받아서 월세 내는 거를 30만원씩 보태서 주고, 동생 다 용돈 주고 동생 먹고 싶다는 거 웃도 다 사 입고. 그래서 딸이 제일 고마워요. (연구참여자 4)

제 생각은요, 안 좋은 것보다는 아이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변했어요. 안 좋은 것은 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엄마 이제 힘든 일 하지마.’ 자기가 이제는 ‘엄마 아빠 다 책임질 테니까 엄마는 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아이가 많이 마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0)

### 좋은 싫든 내 남편

수감 전 남편과의 관계양상은 각자 다르게 나타났지만, 출소 후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

하고자 하였다. 남편이 자녀를 부양하며 기다려준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관계가 더 애뜻해졌다고 말했다. 수감이라는 큰일을 겪으면서 친형제나 시댁식구들조차 돌아서고 도와주지 않을 때, 남편만은 곁에 남아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남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어요. 큰 일을 사람이 겪어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내 신랑밖에 없구나.' 그거를 되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역시 사람은 큰 일을 겪어봐야 안다고, 정말 날 낳아준 부모님이든, 내 피를 나눈 형제든 그렇게 발 벗고 나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않다는 걸. 내 남편, 내가 의지하고 그럴 사람은 내 남편 밖에 없다는 걸 되게 절실하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그렇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이 출소하고 나서 계속 겪으면서 느껴지고, 신랑도, 신랑 나름대로 그런 걸……. 그래도 막 싸우는데 자기를 생각해주고 그런 거는 자기 마누라밖에 없다는 거를 서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연구참여자 8)

수감 전부터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남편에 대한 깊은 애증을 드러냈다. 남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이혼을 고려하거나 폭력과 힘든 삶에 지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감생활을 견디고 출소 후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

면서 이들은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들은 이혼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용서하고 감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남편에 대한 애증도 심하고 원망도 심했고…… 제가 표현을 안 하는데 솔직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용서 다하려고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연구참여자 7)

남편이 안 그러면……. 저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남편이 너무 무지하게 쏘아 부으니까 아파요. 진짜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남편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좀 더 변해줬으면. (중략) 그럴 바에는 '내가 내 새끼들한테 그런 상처는 주지 말아야지'하는 마음이 이 쪽 구석에 있고 이왕 사는 거 내가 조금, 나 하나 눈 감으면…… 아이들한테 나 하나만 생각하면 열 번도 천 번도……. 정리하고 수도 없이 이혼도 하고 마음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혼을 해도 후회. 제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받아서 우리 딸하고 좀 편하게 남편하고 떨어져서 꼭 이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서로가 생각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연구참여자 10)

한편 수감으로 인해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고 이혼한 경우, 처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관

계라 생각하고 남편과의 연을 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출소 후 남편이 폐인이 된 것이 자신 때문이라 느끼자 남편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은 제가 이제 구속되면서, 구속되기 바로 몇 달 전에 이혼했지요. 제가 3년(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팀이 길잖아요. 글썄요.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재혼한 상태도 아니고 해서 남편. (중략) 사실은 제가 출소하면서 이제 남편을 잊고 살려고 했어요. 그냥. 근데 만나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잘못으로 변했으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연구참여자 6)

## 논 의

본 연구는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10명을 대상으로 여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여성출소자가 수감생활과 출소 후 복귀 과정에서 겪는 가족과의 관계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총 2개의 범주, 6개의 주제묶음, 22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2가지 범주는 '수감 중 생활: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 '출소 후 가족 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사의 노력' 이었다. 주제묶음 도출 결과, 각 주제묶음은 수감 생활과 출소 후 과정에서 내 인생의 변곡점,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감 중

생활 :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의 주제묶음은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 낮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 '봐도 걱정 안봐도 걱정인 창살 밖 자녀', '남의 편일수도 내편일수도 있는 남편'이었으며, '출소 후 가족 복귀: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필사의 노력'의 주제묶음에는 '돌아온 나와 함께하는 가족 : 혼자가 아니라서 살만한 거친 세상', '출소자 이기에 더 무거운 엄마의 멍에', '좋은 싫든 내 남편'이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여성출소자의 수감 생활과 출소 후 과정에서의 가족관계 경험을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나를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동료 수감자와 교도관에 대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 갑자기 닥친 수감생활은 두렵고 낮설었지만, 곧 자신처럼 법에 대해 무지해서, 잘못인지 몰라서,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수감까지 겪게 된 동료 수감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동료 수감자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수감 전에 가지고 있던 범죄자와 교도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하는 수감생활 : 낮설지만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동료 수감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들은 글을 모르는 동료 수감자를 위해 편지 대필을 해주거나 영치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나눠 쓰는 등 도움을 베풀었다. 이들은 교도소 안이지만,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동료 수감자들을 보며, 본인도 그 곳에서 수감자들과의 관계에 진솔하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도관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는데, 그것은 교도관들의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태도 때문이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교도관들이 자신들을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여성출소자의 편에서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등에 대해 진심으로 내 편에 서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교도관들은 감옥 내 공부하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수감자들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수감자들로 하여금 출소 후의 삶을 생각하도록 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범수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게 하였으며, 교도소 내의 교육 등을 통해 출소 후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고 연구참여자들은 말했다. 이는 수감기간 중 취업교육이나 직업성취 등에 대한 열망과 활동, 그리고 인간관계가 범죄의 단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ampson & Laub, 1992)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수감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출소 후에는 여성출소자들은 거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혼자가 아니기에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 여기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여성출소자들은 사회에 나와서 여러가지 편견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이사를 해야 했고, 여성으로서 단절된 경력과 많은 나이, 범죄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절실한데도 취업을 하는데 족쇄가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들을 따라다녔지만, 여성출소자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준 사람들의 존재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인 자원 속에서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서비스는 이

들이 다시 일어서는 기반이 되어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성출소자들은 그저 자유를 다시 얻은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퇴근한 남편과 맥주 한 캔을 나눠마시는 소소한 행복’은 가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족과의 화해와 사회적 지원 속에서 이들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키우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출소자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 적응의 근간에는 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있었다. 여성수감자의 가족관계가 교도소에서 높은 적응과 관련되고(Meadows & Wright, 2008), 지속적인 가족과의 관계유지가 가족 외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Mills & Codd, 2008), 이는 출소 후 적응을 위한 자원이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Bales & Mears, 2008; Wolff & Draine, 2004)은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수감생활 중 연구참여자들은 과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인 자녀생각으로 가득하였다. 이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한 것은 바로 자녀를 자신이 돌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수감자의 66.7%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김두섭, 전영실, 1996), 여성수감자들은 수감 전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자녀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Clark, 1995)고 하였다. 이들은 자녀를 매우 그리워하면서도 수감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싫어 접견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수감복이라는 ‘범죄자’의 표식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엄마가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자녀가 위축되거나 주변으로부터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하였다. 어린 자녀를 가진 수감자일수록 자녀에 대한 근심이 더 깊었는데, 구금으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다. Dallaire(2007)은 아버지인 수감자에 비해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어머니인 수감자가 더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나 친척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여성수감자가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더욱 고통받게 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Leapheart, 1997).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감추고 싶어 했는데, 이는 자신의 수감사실로 인해 자녀가 충격을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었지만,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녀가 수감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빛'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최영신과 황정임(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출소자 대다수는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고 재결합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으며, 이를 교도소 내 서신이나 접견, 통화 등을 통한 외부인과의 접촉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출소 후, 여성출소자들은 자녀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출소자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명예를 더 크고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엄마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부재해 있는 사이에 자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예로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수감 중 더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기로 각오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수감생활로 인해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

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여성출소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만큼 가정으로 돌아온 뒤에는 못다한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여성출소자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몸과 마음이 훌쩍 자란 자녀의 모습에 감동을 느끼면서도 엄마의 수감으로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일찍 어른아이가 되어야 했던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자녀 또한 수감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재로 영향을 받았다. 수감 당시 나이가 어린 자녀나 청소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어머니의 부재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린 자녀는 엄마가 돌아온 뒤에도 한 동안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고 엄마의 위치를 때번 확인하는 등 정서적인 불안을 보여 상담을 받았다. 또한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였으며, 학교에 가지 않는 등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부모의 구금이 자녀의 행동변화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Hanlon et al, 2005; Murray & Farrington, 2005), 수감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재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Johnston, 1995; Kazura, 2001; Mumola, 2000; Seymour, 1998; Young & Smith, 2000).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가 부재하였을 때 살이 급격하게 찌고 학교에 부적응을 보였던 자녀가 출소 후 어머니의 가정복귀 이후에는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단절이 자녀의 정서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어머니가 가족으로 복귀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가 회복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의 자녀 몇몇은 어머니의 수감 이후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성숙해졌으며, 수감된 엄마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엄마와의 관계가 전보다 더 좋아지게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엄마가 수감 시 성인이었거나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었을 경우, 그리고 대체 양육자의 지지가 강했던 자녀의 경우, 엄마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적응이 빠른 편이었다. 여성이 구금된 동안 다른 가족들이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견고하게 지지해 줄 때 자녀가 잘 적응한다는 연구(Cecil, McHale, Strozier, & Pietsch, 2008)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자녀는 엄마가 없는 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엄마처럼 동생을 돌보기도 했으며, 엄마와 접견 시에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고 엄마를 위로하기도 했다. 대체 양육자의 존재 외에도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여성출소자들의 수감 사유가 경제사범인 점도 자녀와의 관계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득이하게 수감되었음을 이해한다고 자녀들이 말하였다고 보고했다. 연구참여자들 대다수는 남편의 사업을 돕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 가정의 경제적인 면을 많이 책임져 왔다.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자녀들은 사업부도로 집안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겪었고, 이를 막기 위해 어머니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어머니가 범죄자라고 인식하기보다, 어머니의 수감을 자신들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해 벌어진 사고와 같이 여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 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거나, 여전히 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자녀는 엄마가 수감된 이유가 아버지의 탓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을 위해 엄마가 희생한 결과 수감된 거라고 엄마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수감생활과 출소 후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수감생활 중 갇힌 틀 안에서의 몸부림을 치던 때에는 ‘남의 편일수도 내편일수도 있는 남편’으로 생각하였으나, 출소 후 가족으로 복귀하기 위해 갈라진 틈을 메우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싫든 내 남편’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출소자들은 전반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수감 전에도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았던 연구참여자의 경우, 이 같은 관계는 출소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오히려 부부사이가 돈독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출소자의 수감 자체가 남편의 부도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온 여파라는 점, 수감 전에 연구참여자들이 가정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었다는 점이 남편들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며 아내를 기다리도록 요인이었다. 남편들은 아내가 없는 동안 그 빈자리를 많이 느꼈고, 연구참여자들 또한 이혼이 잦은 교도소 안 상황을 보면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자신을 기다려준 남편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원치 않게 이혼을 통보받는 동료 수감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부부관계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이야기 했다.

심지어, 어떤 연구참여자는 수감 생활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수감 전에 남편의 폭력으로 괴로워했던 경우에도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아버

지 없이 자라게 할 수 없기에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함께 사는 게 힘든 남편과 조금 떨어져 살면서 남편도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런 방식으로나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내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편이나 시집의 가혹한 학대를 받으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수십 번 다짐하면서도 결혼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성정현, 송다영, 한정원, 2003),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이 변화되길 기다리며 가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 과도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인내하는 모습은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대는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에게 자신과 같은 역기능적 가정을 대물림 하고 싶지 않은 강력한 소망의 의지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자신이 수감되자 자신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한 남편에 대해 원망을 품었던 연구참여자의 경우도 출소 후 폐인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이혼 상태임에도 자신이 그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떤 연구참여자는 이혼한 남편에 대해서조차 책임감을 보이며, 가정의 복원을 위해 자신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여성출소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출소자들을 위한 취업교육, 경제적인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출소자들은 여자이고, 출소자이기에 남성출소자보다 더 많은 편견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출소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을 할 때 이력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또한 수감 사실을 배제하고라도 결혼 이후 일을 그만두었거나, 수감 때문에 이전의 직업과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경력단절 여성으로서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야 했다. 또한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여성지원센터에서 제과제빵, 화훼, 미용, 바리스타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자기 가게를 갖지 않는 한 40대의 나이에 새로운 경력을 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여성출소자가 사회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좀 더 다양화되고, 현실성 있는 취업지원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출소자와 그 남편을 위한 부부관계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출소자들에게 있어 동거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강력한 누범억제요인이 된다(김인숙, 1992; Andersen, Andersen, & Skov, 2015; Visher, Knight, Chalfin, & Roman, 2009)는 선행연구처럼 자녀가 이들이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면 남편과의 화해는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지지 기반이 된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플라타너스 결혼식(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처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여성출소자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통해 신혼생활을 떠올리면서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여성출

소자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부상담 및 교육, 합동결혼식과 같은 지원을 확대 및 홍보하여, 여성출소자가 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감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 대한 심리건강과 출소자 부모들을 위한 부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출소자 자녀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출소자들은 출소와 관련된 시설에 자녀를 데려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출소자의 교육 및 보호기관과는 분리된 심리상담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여성출소자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 적응과정 속에서 이들의 가족관계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 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여성출소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시점에서 여성출소자들에게 남성출소자와는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여성출소자의 삶에 배우자와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후 공단)의 주거지원을 제공받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여성출소자들만을 면접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단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다른 여성출소자에 비해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10여명이라는 제한된 연구참여자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가 다수가 모범수이며 초범인 경우가 많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둘째, 공단의 추천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선정되면서 모범수들을 위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기에, 강력범죄보다는 경제사범들이 많았으며 수감기간도 4개월에서 5년 이내로 짧은 편이었다. 범죄유형이나 수감기간에 따라 여성출소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여성출소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와 자녀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 경험을 살펴 보기는 하였으나, 자녀보다는 여성출소자에게 있어 자녀의 의미와 그 영향이 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한 부재로 범죄의 대물림의 위험이 있는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출소자 관련 연구 중 출소 후 사회복귀과정을 시간차를 두어 연속적으로 조사한 종단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속연구로 여성출소자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조사한다면, 여성출소자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여성출소자의 재범예방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두섭, 전영실 (1996). 여성 수형자의 수형 생활 실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대

- 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영천 (2006).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운영사례 질적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인숙 (1992).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刑事政策, 6, 9-31.
- 박영숙 (2007). 여성 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의 방향. 교정복지연구, 10, 39-63.
- 법무연수원 (2014a). 범죄백서 2013.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2014b). 여성통계 2013. 법무연수원.
-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 (2003). 이혼가족 및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1, 9-34.
- 신연희 (2002). 기혼여자재소자에 관한 연구: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태완 (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189-213.
- 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이혼경험에 대한 질적분석 - 부모의 경험과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57-176.
- 이수정, 양원석 (2011).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에 대한 소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909-932.
- 전영실 (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준, 이회정 (2009). 여성수용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44, 221-241.
- 최영신, 황정임 (200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연구총서 06-24.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ndersen, S. H., Andersen, L. H., & Skov, P. E. (2015). Effect of Marriage and Spousal Criminality on Recidivis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2), 496-509.
- Arditti, J. A., & Few, A. L. (2006). Mothers' reentry into family life following incarceration.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7(1), 103-123.
- Austin, J., & Irwin, J. (2001). *It's about time: America's imprisonment binge*. Wadsworth: Cengage Learning.
- Bales, W. D., & Mears, D. P. (2008). Inmate social ties and the transition to society: Does visitation reduce recidivism?.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3), 287-321.
- Bergseth, K. J., Jens, K. R., Bergeron-Vigesaa, L., & McDonald, T. D. (2011). Assessing the needs of women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Women & Criminal Justice*, 21(2), 100-122.
- Berman, J. (2005). *Women offender transition and reentry: Gender responsive approaches to transitioning women offenders from prison to the community*.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 Bloom, B., Owen, B., & Covington, S. (2004). Women Offenders and the Gendered Effects of Public Policy. *Review of Policy Research*, 21(1), 31-48.
- Bui, H. N., & Morash, M. (2010). The impact of network relationships, prison experiences, and internal transformation on women's success after prison release. *Journal of Offender*

- Rehabilitation*, 49(1), 1-22.
- Cecil, D. K., McHale, J., Strozier, A., & Pietsch, J. (2008). Female inmates, family caregivers, and young children's adjustment: A research agenda and implications for corrections programm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6), 513-521.
- Chesney-Lind, M., & Pasko, L. (2003).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lark, J. (1995). The impact of the prison environment on mother. *The Prison Journal*, 75, 306-329.
- Cobbina, J. E. (2010). Reintegration success and failure: Factors impacting reintegration among incarcerated and formerly incarcerated women.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9(3), 210-232.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llaire, D. H. (2007). Incarcerated mothers and fathers: A comparison of risks for children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56(5), 440-453.
- Dallaire, D. H., Zeman, J. L., & Thrash, T. M. (2015). Children's experiences of maternal incarceration-specific risks: Predictions to psychological maladapt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4(1), 109-122.
- Enroos, R. (2011). Mothers in prison: between the public institution and private family relations. *Child & Family Social Work*, 16(1), 12-21.
- Foster, H. (2012). The strains of maternal imprisonment: Importation and deprivation stressors for women and childre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0(3), 221-229.
- Gabel, K., & Johnston, D. (1995).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New York: Lexington Books.
- Glaze, L. E., & Maruschak, L. M. (2008). *Parents in prison and their minor childre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Hairston, C. (2003). *Prisoners and their families. Prisoners once removed: The impact of incarceration and reentry o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Halperin, R., & Harris, J. L. (2004). Parental rights of incarcerated mothers with children in foster care: A policy vacuum. *Feminist Studies*, 30(2), 339-352.
- Hanlon, T. E., Blatchley, R. J., Bennett-Sears, T., O'Grady, K. E., Rose, M., & Callaman, J. M. (2005). Vulnerability of children of incarcerated addict mothers: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1), 67-84.
- Javdani, S., Sadeh, N., & Verona, E. (2011). Expanding our lens: Female pathways to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8), 1324-1348.
- Kazura, K. (2001). Family programming for incarcerated parents: A needs assessment among inmat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32(4), 67-83.
- Kierkus, C. A., & Baer, D. (2002). Social Control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Delinquent Behaviour.

- Canadian J. Criminology*, 44, 425-458.
- Leapheart, P. (1997). *A review of institutional programs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females and their children*. Masters Dissertation. Central Missouri State University, Missouri, United States.
- Leverentz, A. (2010). People, places and things: How female ex-prisoners negotiate their neighborhood context.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9(6), 646-681.
- Leverentz, A. (2011). Being a good daughter and sister: Families of origin in the reentry of African American female ex-prisoners. *Feminist Criminology*, 6, 239-26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Newbury Park, CA: Sage.
- Meadows, D. H., & Wright, D. (2008). *Thinking in systems: A primer*. White River Junction, Vermont: Chelsea Green Publishing.
- Menting, A. T., de Castro, B. O., Wijngaards-de Meij, L. D., & Matthys, W. (2014). A trial of parent training for mothers being released from incarceration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3(3), 381-396.
- Messerschmidt, J. W. (1986). *Capitalism, patriarchy, and crime: Toward a socialist feminist criminology*. Totowa, NJ: Rowman & Littlefield.
- Mills, A., & Codd, H. (2008). Prisoners' families and offender management: Mobilizing social capital. *Probation Journal*, 55(1), 9-24.
- Moffitt, T. E., Caspi, A., Rutter, M., & Silva, P. A. (2001). *Sex differences in antisocial behavior: Conduct disorder, delinquency, and violence in the dunedin longitudinal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mola, C. J. (2000).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Michigan, United States. <http://bjs.ojp.usdoj.gov/content/pub/pdf/iptc.pdf>에서 인출.
- Murray, J., & Farrington, D. P. (2005). Parental imprisonment: Effects on boy's antisocial behaviour and delinquency through the life-cours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12), 1269-1278.
- Murray, J., Farrington, D. P., & Sekol, I. (2012).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mental health, drug use, and educational performance after parental incarcer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8(2), 175-210.
- Nesmith, A., & Ruhland, E. (2008).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hallenges and resiliency, in their own wor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1119-1130.
- O'Brien, P. (2001). "Just like baking a cake": Women describe the necessary ingredients for successful reentry after incarceration.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82(3), 287-295.
- O'Brien, P. (2007). Maximizing success for drug-affected women after release from prison: Examining access to and use of social services during reentry. *Women & Criminal Justice*, 17(2-3), 95-113.
- Opsal, T. (2015). "It's Their World, so You've Just Got to Get Through" Women's experiences of parole governance. *Feminist Criminology*, 10(2), 188-207.

- Petersilia, J. (2003). *When prisoners come home: Parole and prisoner reent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 S. D., Burns, B. J., Wagner, H. R., Kramer, T. L., & Robbins, J. M. (2002). Parental incarceration among adolescents receiving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4), 385-399.
- Poehlmann, J. (2005). Incarcerated mothers' contact with children,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50-357.
- Prendergast, M. L., Wellisch, J., & Wong, M. M. (1996). Residential treatment for women parolees following prison-based drug treatment: Treatment experiences, needs and services, outcomes. *The Prison Journal*, 76(3), 253-274.
- Sampson, R. J., & Laub, J. H. (1992). Crime and deviance in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63-84.
- Seymour, C. B. (1998). Children with parents in prison: Child welfare policy, program, and practice issues. *Child Welfare-New York*, 77, 469-494.
- Simmons, C. W. (2000).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Sacramento, CA: CRB.
- Taylor, S. D. (1996). Women offenders and reentry issue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28(1), 85-93.
- Temin, C. E. (2001). Let us consider the children. *Corrections Today*, 63(1), 66-69.
- Turanovic, J. J., Rodriguez, N., & Pratt, T. C. (2012). The Collateral Consequences Of Incarceration Revisite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n Caregiver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riminology*, 50(4), 913-959.
- Visher, C. A., Knight, C. R., Chalfin, A., & Roman, J. K. (2009). *The Impact of marital and relationship status on social outcomes for returning prisoner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Wildeman, C., & Turney, K. (2014). Positive, negative, or null? The effects of maternal incarceration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Demography*, 51(3), 1041-1068.
- Wolff, N., & Draine, J. (2004). Dynamics of social capital of prisoners and community reentry: Ties that bind?. *Journal of Correctional Health Care*, 10(3), 457-490.
- Young, D., & Smith, C. J. (2000). When moms are incarcerated: The needs of children, mothers, and caregiver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81(2), 130-141.
- 1차원고접수 : 2016. 01. 24.  
심사통과접수 : 2016. 02. 25.  
최종원고접수 : 2016. 03. 10.

## The Life and Family Relation Experience of Female Ex-offenders During and After Incarceration

DongHun Lee      Ji-Young Shin      EunJung Jo      JinJoo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fe and the experience of the family relation that female ex-offenders undergo during and after incarceration, and to understand its meaning and the natur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held with 10 female ex-offenders in their 30s and 50s who had housing and education service from Korea Rehabilitation Agency in Ministry of Justice. The collected information was analyzed by the Colaizzi's(1978) strategy of descriptive phenomenology data analysis. The significant statements extracted from the transcript were sorted into categories, clusters of themes, and themes. The results were composed of 22 themes, 6 clusters of themes, and 2 categories of incarceration life and family restoration after released from the prison. Clusters of themes in incarceration life was 'incarceration life without family', 'worrysome children', 'husband in my side and the other side' and clusters of themes in family restoration after released from the prison was 'along with the family after returning home', 'the heavier the yoke of mother as ex-offender', 'like it or not, he is my husband'. The discussion and implication are provid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Key word: female ex-offender, incarceration, released from the prison, family relation, colaizzi, qualitative analysis*